

## 도구에 대한 소고-의자를 미술화하려는 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의자란 사물이 어떻게 미술적 표현으로 전환되는 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의자란 일반적으로 다리가 서너 개 그리고 등받이 혹은 팔걸이가 있기도 한 사물이며 사람이 사용하고 주로 앉는 자세를 위한 도구입니다. 미술가들은 아마도 재료, 크기, 형태 그리고 색상의 변화를 통해 의미를 발생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 어떤 미술가가 의자를 미술로 표현할 때,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평범하게 제작된다면 우리는 실제 의자와 미술가가 만든 의자 간의 차이를 못 느끼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난 어느 미술가는 다섯 개의 의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의자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의자를 만들기 위해 재활용 가게에 들러 여러 개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그가 완성한 의자의 형태는 앉는 부분으로 보이는 누어진 여행용 가방 하나, 그리고 등받이용으로 보이는 세로로 세워진 여행용 가방 하나, 마지막으로 의자 다리용으로 보이는 좀 더 작은 크기의 두 개의 여행용 가방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하나의 의자가 탄생되었는데 그는 이러한 조합의 여행용 가방의자를 1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들은 청동으로 주조하였습니다. 주조하였다는 뜻은 뜨거운 불에 녹인 청동을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청동으로 주조한 이유는 이 의자들을 공공 장소에 설치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장을 거닐던 사람들은 여행용 가방 형태의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앉는 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40센티 정도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매우 근엄해 보이며 현대적인 감각이 있고 익살스러우면서 약간은 고독해 보였습니다.

이 의자는 크기, 형태, 색상보다는 재료가 강조된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의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는 이 작품에 <진보를 위한 의자>란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이 미술가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그의 삶에 대해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는 여행용 가방을 작품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자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는 이 작품의 제목을 <정의의 의자>라 명했습니다. 정의란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철학에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뜻합니다. 미술가는 의자의 올바른 도리 혹은 공정한 도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자의 편안함이라던가 의자의 형태에 따른 상징적 의미와 같은 것보다는 의자 자체를 주체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앉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목적이 의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조그만 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돌은 사람이 앉기 적당한 크기와 높이 심지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매우 편해 보였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이 돌을 바라보면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망연히 바라보면 이것은 의자라기 보다는 돌이고, 이렇게 돌을 운반해 놓은 행위의 결과가 과연 보는 이들에게 의자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미술가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개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 의자>는 돌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미술가의 상상 속에, 그의 계획서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프로젝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 의자에 <권리의 의자>란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권리라 함은 이익과 권세를 뜻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 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미를 위해 특별한 형태를 가진 의자를 만들거나 특별한 재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색상이나 크기에 변화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자 여러 개를 수집한 다음에 길거리의 구석이나 건물의 꼭대기, 혹은 5층 높이의 건물 외벽 등에 위치시켜 놓으려 했습니다. 건물 꼭대기나 건물 외벽은 추락 등의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자들은 단단히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건물 꼭대기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아래의 풍경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한 의자에 앉은 사람은 길을 걷는 여러 사람들을 마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자에 앉은 사람은 다른 보행자들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자들은 시내 한복판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3,000㎡, 약 900평쯤 되었습니다. 수량은 40개 정도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의자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의자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쉽게 손상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 행정부처나 관련 건물주로부터 의자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 미술품에 대한 그의 제도적 식견이 떨어져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설치 불가능한 상황이 자신이 제안하는 <권리의 의자>의 개념과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이 의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상과 실현되지 못한 제안도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네 번째 의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제작되었고, 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노력을 요하는 의자였고 그래서 그는 이 의자에 대해 애착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함은 의자 쿠션 내부에 설치된 매우 정교하고 안전한 온도 조절 기능을 말합니다. 그는 먼저 1978년에 출시된 폴트로나 디 프루스트 Poltrona di Proust란 이름의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이 의자의 디자이너는 멘디니 Alessandro Mendini이고 그는 폴 시냐크 Paul Signac란 화가와 협업을 통해 일인용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외형은 18세기 프랑스의 네오 바로크스타일로 되어 있고 의자의 프레임과 쿠션 전체는 인상주의 점묘법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형태 색상 모두 매우 화려한 의자입니다. 높은 가격의 이 의자를 5개 정도 구입하여 그 내부에 자동차 시트나 전기 장판과 같이 전기 열선을 장치했습니다. 심지어 마사지 기능도 추가하여 이 의자에 앉아 스위치를 켜면 따뜻함 속에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의자의 판매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는 이 의자에 <민주주의의 의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화려한 의자에게 이런 이상한 제목을 부여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

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혹시 그는 국민의 권력에만 의미를 적용한 게 아닐까요? 매우 냉소적으로 현재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풍자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 등을 극복한 사상이니 만큼 이 사상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겸허히 존경심을 가득히 담아 최고의 사상적 선용으로 우러르려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려 한 것일까요?

다음은 마지막 의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벤치로 제작되었으며 공공 장소에 설치되었습니다. 미술가의 의도는 의자이지만 앉을 수 없는 의자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앉는다는 행위는 '휴식', '정지', '거주', '안정'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와는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노동', '진행', '이동', '변화' 과 같은 행동적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철조망더미를 이용하여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철조망 더미란 철조망으로 외부 형태를 만들고 내부 속까지 철조망이 꽉 차있다는 뜻입니다. 이 벤치는 세 개가 제작되었고 각각의 형태는 모두 달랐습니다. 하나는 한글의 니은 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는 니은 자 형태에서 내부 각이 예각이 되게 하여 각이 진 부분을 땅에 고정하였습니다. 각각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였지만 그 높이가 무려 8미터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나 그 주의를 건넌 사람들은 이 의자에 앉을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미술가는 이 의자에 <혁명의 의자>라고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느 미술가의 의자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순수한 물질에 대한 소고-돌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돌로 이루어진 저의 미술 작품에 대해 설명할까 합니다. 저의 완성된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그러나 실현되기를 바라는 미래의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작품은 도시지정학적 의미를 내포한 공공적 제안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이자 공원입니다.

돌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무언가 기념하고자 할 때 흔히 돌멩이를 들고 오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현무암을 들고 오는 일은 자신의 추억을 물질을 통해 항상 간직하고자 하는 의미일 겁니다. 수석은 수집의 의미를 너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숭고한 경외심을 위한 것으로 수집가는 구도자의 자세로 돌을 수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오랜 동안 관조하기도 합니다. 미술가들도 돌을 보면 이리저리한 상념에 젖기 마련이지만 돌의 물질적인 면을 관찰하여 이를 해석하는 과정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수집하여 전시장에 나열 하기

돌이 있는 장소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돌을 보여 주기

여러 돌을 수집하여 이를 조합해 보기(쌓기, 병렬로 세우기, 붙이기 등등)

돌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어떤 형태로든 조각하기

돌을 캐스팅한 후 이를 청동, 석고, 실리콘, 흙 등의 다른 재료로 변환 하기

돌을 화폭에 그리기

돌을 사진 찍기

돌을 비디오로 촬영하기

돌을 던지며 놀기

거대한 돌을 그 현장에서 자르기

돌을 가루로 만들어 다른 형태로 만들기

이렇게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미술가들은 돌을 마차 동네 야채 가게에서 사온 감자 다루듯이 쉽게 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보다 돌을 조금 더 신화화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돌은 무언가 인간에게 추상적으로 다가 오는 힘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멋진 돌을 발견한 미술가가 이를 조각하거나 혹은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일이 혹시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과 욕망 때문이 아닐까 싶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공개하고 싶은 미술가들은 관람객들과 함께 돌이 있는 장소로 찾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미술가들은 돌을 조각한다는 자신의 태도가 불경스럽다고 느낀 나머지 돌의 표면에 아주 조그만 흔적만 남기기도 하고, 돌로 대체할 만한 콘크리트를 조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대한 돌을 마음대로 조각하고 원하는 장소에 이동시키는 미술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미술품들은 오랫동안 보존되어 역사성을 내포한 새로운 개체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돌을 사용하여 하나의 미술작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고독한 여정>입니다. 이 작품은 장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펙타클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돌이 돌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층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를 선택합니다. 이 작품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장소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딩 하나를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빌딩이 있던 그 장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후 돌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분과 함께 전국의 돌산, 가능하면 전세계의 돌산을 탐방하여 형태와 의미가 가장 우수한 돌을 수집합니다. 가능하면 작은 돌부터 커다란 암석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어야 하면 약 50층 높이의 건물 내부에 가득 채울 만한 양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돌은 풍수지리학자, 지질학자, 시인, 정원사, 건축설계사, 구조공학자 등 가능하면 산과 건축에 관계된 모든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 돌산을 만들기 위해 서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0층 높이의 육면체 형의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축물은 골격만 있고 외부 벽면이 없는 뿔뿔린 상태의 구조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집해 온 돌과 암석을 전문가와 함께 차곡 차곡 1층부터 쌓아 올립니다. 그리하여 건물의 45층 높이의 돌산을 만듭니다. 가능하면 이 돌산에 어울릴 만한 나무나 식물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폭포와 연못 정도는 산의 적당한 부분에 설치하여 소리가 있는 산으로 변모시킵니다. 산이 완성되면 건축물의 외벽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외벽은 모두 유리로 감싸고 산의 뒷면은 되도록이면 콘크리트로 마감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종결됩니다.

이 건물과 돌산이 완성되면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이 길거리에서 이 돌산을 바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방문한 이들은 이 돌산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매우 가파른 경사를 가진 산이지만 이 돌산을 오르고자 하는 이들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물의 사용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요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입장은 예약제입니다. 일회 입장의 인원은 최대 열명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후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은 20시간 이내입니다. 건물은 휴일 없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건물 내에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혹은 샤워할 수 있거나, 음악이 있거나, 커피 같은 음료를 제공하거나 하는 일련의 문화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건물과 산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 돌산은 태생적으로 매우 불쌍한 산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만큼은 최고로 세련된 자태를 가진 대상임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러한 돌산을 제안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거대한 인공 섬은 물론이고 화성탐사선도 만드는 이 시대에 이런 것쯤이야 보잘것없는 프로젝트이겠지만 만약 이것이 만들어 진다면 이것은 인간의 원죄가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형태화 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소고-물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물에 대한 미술을 설명할까 합니다. 물은 아시다시피 형태화되기 매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미술가들이 물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아마도 형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화되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해서 추상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상성 때문에 예술가들은 은유나 상징을 통해 물을 사랑으로, 냉정으로, 아름다움으로, 혹은 생명으로 표현하였나 봅니다.

저는 그러나 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새 눈물이 생각나곤 합니다. 눈물은 바닷물, 강물보다 그 양이 크게 적고 심지어 빗물처럼 운동감도 적지만, 제게 있어서는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는 매우 감정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소재로 한 몇 개의 작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본 어느 미술가의 작품은 자신의 방에 설치한 것으로 벽지를 통해 눈물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방 안은 텅 비어있고 사면의 벽 중 어느 한 벽면의 벽지를 천장부터 바닥까지 약 3밀리미터의 폭으로 뜯어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벽지가 뜯겨 나간 자국은 마치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가 천장부터 바닥까지이니 아마도 그 길이가 약 3미터 정도가 될 것 입니다.

또 다른 미술가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술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작품은 철이란 재료로 만들어 졌으며 그 크기는 한 방울의 눈물만큼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철이란 무거운 재료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의 눈물은 길이가 약 8mm이고 지름이 약 5mm로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아래쪽은 물방울처럼 둥글게 되어 있고 위 부분은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완성은 하나의 눈물 방울이 아니라 아주 가는 철선에 수많은 눈물방울입니다. 하나의 눈물과 다음 눈물의 사이는 약 10cm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눈물의 선(선)은 실내 공간의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눈물로 이루어진 줄은 대략 220개 정도이니 엄청난 양의 눈물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위를 서성거리면 공기의 움직임으로 눈물은 흔들리고 눈물의 부딪침으로 눈물은 소리를 냅니다. 소리는 매우 청량하지만 때론 고독하고 처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눈물 작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슬픔에 대해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과거의 슬펐던 기억이나 책에서 읽었던 슬픔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슬픔 자체를 느낄 것입니다. 만약 눈물이 흐르면 슬픔은 잊고 눈물을 흘리는 내 자신을 생각할 겁니다. 그때 이 작품은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저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

## 윤리적 태도에 대한 소고-사람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미술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를 퍼포먼스라고 통상적으로 용어화하여 퍼포먼스아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퍼포먼스는 연극적 성격의 공연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관객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참여적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작품 제작의 노동 과정을 관객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같은 기록적 행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장비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이 보편화된 세상에 있다 보니, 퍼포먼스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 사적인 곳, 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 영상을 보여 주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퍼포먼스 작품인지 비디오 작품인지 구별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미술가들은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이를 미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일까요? 연극, 무용과의 차별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극적이면서, 즉흥적이기도 하고, 관객 참여적이면서도, 미술적이라 할 만한 매우 야심 찬 계획을 세워 보기로 했습니다. 대본도 있는 퍼포먼스, 제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의 연습에 의해 진행되는 퍼포먼스, 무대가 아닌 평범한 곳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퍼포먼스,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종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열린 결말의 퍼포먼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풍경을 작품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전시장 내부에는 미술 작품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화자와 청자, 그리고 이를 구경하는 관조자들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품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품이 있다고 믿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아가 관람자 스스로 작품을 머리 속에 상상하며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이 작품의 일부이자 이미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표현에 대한 소고-개념을 미술화하려는 의지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단어가 미술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술을 통해 관용이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오랜 동안 고민하던 어느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이 미술가는 원래 회화 전공으로 민중 미술로 불리는 그림을 그려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주로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을 그려내었는데 그는 관조자로서 그림을 그렸지 그러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차츰 성공을 거두자 주변에서는 그러한 그의 태도를 두고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연 약자의 삶을 제대로 알고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술가는 타인의 삶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약자를 만나 그들의 실상을 안다고 하는 객관적 태도는 오히려 미술가적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동정이라도 생기게 되면 객관적 시각은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미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엉망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냉정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기보다는 알레고리를 통해 사회상을 묘사하는 소설가의 태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비판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 2년간 신작을 그려내지 않고 집에만 파묻혀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걱정되어 그를 찾아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커다란 실망을 하여 붓을 꺾어 버렸는지, 아니면 원대한 작품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미술가는 드디어 바깥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약 8점의 회화 작품이 전시장에 등장했는데, 추상화라 불릴 만한 이미지가 화폭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품 제목은 <관용>이었습니다. 과연 <관용>이란 추상적 의미를 어떻게 화폭에 담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스타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그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관용>이란 의미를 주제로 하여 과연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네모난 화폭에 <관용>의 의미를 담아 낼 수 있을까요? 미술은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까요?

그의 그림의 대부분은 모노크롬 회화였습니다. 어떤 그림은 캔버스 표면이 그대로 보일 만큼 아주 얇게 펴 바른 것이었고, 어떤 것은 물감이 범벅이 될 만큼 두껍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색상은 중간색조도 있었고, 어떤 것은 원색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인지, 베이지인지, 먼지 색인지 모른 만큼 존재감이 없는 색상에서부터, 물감 회사에서 생산된 물감을 그대로 바른 듯한 강렬하지만 무언가 유치해 보이는 빨간색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미술가는 물감과 캔버스라는 물질에 관용의 의미를 적용한 걸까요? 혹은 이러한 의도를 이해할 관람자들에게 관용을 요구한 것일까요? 이 미술가는 이 전시에서 제목만 제시했을 뿐, 단 한번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도와 제작배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시 이후 그는 계속 <관용>의 연작을 그렸지만 단 한번도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미술가는 '인식'을 주제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2011

김홍석